



너무나 인간적인,

## 너무나 친구 같은 늑대 이야기

십여 년이 지나 이제 기억나는 것도 별로 없지만, 대학을 다닐 때 내 전공은 식물학이었다. 사실 그렇게 세분하는 것도 우습긴 하지만, 어쨌든 그랬다. 식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있었으니 당연히 동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원래 취향대로 전공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대체로 식물학 전공자와 동물학 전공자는 차이가 났다. 당시 표현을 쓰자면, 전자는 식물적, 후자는 동물적이었다. 한마디로 식물적인 인간들은 좀 차분하고 조용히 놀고, 동물적인 인간들은 말 그대로 짐승처럼 논다는 뜻이었다. 물론 식물학 전공자들의 입장에서 한 말이다.

그런 배경이 있었기에, 번역자 세계로 들어온 뒤 식물을 다룬 좋은 책들이 없나 살펴본 것도 당연했다. 하지만 동물을 다룬 책들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반면에 식물을 다룬 책들은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였다. 《궁궐의 우리 나무》(눌와), 《신갈나무 투쟁기》(지성사), 그리고 현진이나 이유미, 차윤정 같은 전문가들의 식물 책들을 볼 수 있기에 그나마 다행이라고나 할까. 참, 《꽃의 유희》(이제이북스)처럼 식물의 요모조모를 쉽게 풀어쓴 책도 읽을 만하다.

하지만 온갖 모험과 짜릿함, 두려움과 슬픔, 따스함과 잔잔함을 맛볼 수 있는 동물책들에 비하면, 아직 식물책들은 미흡하다. 까닭은? 뭐니뭐니해도 동물은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이 동물이니 동족인 동물들의 삶에 더 공감하는 것도 당연지사이다.

하지만 그런 공감은 동물을 지나치게 의인화함으로써, 그 동물 본래의 모습을 왜곡시킬 위험이 많다. 예전부터 전해져 온 맹수류에 관한 이야기들이 대표적이다. 집채만한 호랑이나 늑대들이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이야기들이 그런 예이다.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 깊은 인상을 새겨놓은 셈이다. 맹수들에 쫓겨다니던 원시시대의 기억이 뇌리에 깊게 새겨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위대한 늑대들》(지호)에서 어니스트 시튼은 그렇지 않은 늑대들도 있다고 말한다. 늑대는 잔인함과 파괴와 탐욕스런 식욕만을 떠올리게 하지만, 실제로는 지혜와 모험심, 새끼들에 대한 사랑과 짝에 대한 헌신, 인간에게 감동을 줄 만큼 지극한 효성, 다른 동물들과의 우호관계를 보여주는 늑대들도 있다고 말이다. 다행히 과학의 발전 덕택(굳이 이 말을 쓴 이유는 과학을 환경과 과학과 동일시하는 오류가 흔히 나타나기 때문이다)에 우리는 소문과 '카더라' 통신으로 들던 왜곡된 지식과 편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그런 늑대들의 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시튼과 필리 모왓 같은 사람들의 끈기 있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시튼의 책들을 읽다보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물론 니체는 그 말을 다른 의미로 썼겠지만



말이다. 시튼은 감동을 안겨줌으로써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는 뚜렷한 목표를 갖고 글을 썼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같은 노랫말을 염두에 두었을 리는 없겠지만, 아무튼 시튼은 인간적인 모습이 감동을 준다고 생각한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시튼이 보여주는 동물들은 너무나 인간적이다.

《위대한 늑대들》에 나오는 늑대들도 그렇다. 사냥꾼에게 잡혀 키워졌다가 탈출해 어미에게로 돌아가서 나중에는 늑어 사냥을 못하게 된 어미를 위해 먹이를 갖다주는 효성 지극한 쉬쇼카, 마치 전제군주처럼 늑대 무리를 이끌고 프랑스 중부 전역을 휩쓸면서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늑대왕 쿠르토, 5,000명에 가까운 사냥꾼들과 싸우면서 종횡무진하다가 결국 장렬한 죽음을 맞이한 식인 늑대 라베트 등. 또 《아름답고 슬픈 야생동물 이야기》(푸른숲)에 나오는 늑대왕 로보도 있다. 온갖 지혜와 용기로 멧돼지를 피해 다니던 로보는 짝이 사냥꾼들에게 잡히자 짝을 찾아 정신 없이 헤매다가 결국 붙잡힌다. 로보는 먹이를 거부하고 장렬하게 죽음을 택한다.

시튼의 이야기들은 그가 원한 대로 감동을 준다. 그런 한편으로 늑대가 피 묻은 이빨을 드러내고 쓴살같이 달려오는 무시무시한 동물이라는 인상도 함께 심어준다. 너무나 인간적으로 그려졌기에, 인간의 본능적인 두려움까지 자극하는 듯하다.

반면에 팔리 모왓의 《울지 않는 늑대》(돌베개)에 나오는 늑대들은 전혀 판판이다. 이 책은 저자가 초보 생물학자로서 캐나다 아북극 지역으로 가서 늑대를 관찰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쓴 좌충우돌 모험담이다. 여기 등장하는 늑대들은 전혀 무섭지 않다. 오히려 자신들을 관찰한답시고 허둥지둥 실수를 연발하는 저자를 '재, 뭐하는 거야?' 하는 식으로 지켜보고 있다. 여기 늑대들은 팔짝팔짝 뛰기도 하고 벌렁 드러눕기도 하는 등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행동해서 호기심 많은 새들을 끌어 모아 잡으려 시도하기도 하

고, 늑대라는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게 살금살금 다가가서 쥐를 수십 마리씩 잡아 배를 채우기도 한다. 또 새끼들이 으르렁거리며 몸을 물어뜯는 것을 계속 참다가 다른 늑대에게 대신 놀아달라고 말하고 슬쩍 몸을 피하기도 한다. 순록이 건강하지 아닌지 시험해 보기 위해 잠깐 뒤쫓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기도 한다. 그리고 저자가 시험삼아 자기 텐트 주위에 오줌을 싸서 영역을 표시하자, 고심하다가 그 영역을 인간의 것으로 인정하는 아랑을 배풀기도 한다. 마치 늑대와 인간이 한데 어울려 친구처럼 지내는 듯하다.

팔리 모왓의 늑대들이 친근하고 새롭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편견을 갖고 동물들을 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늑대는 무시무시한 동물이고, 땅을 기어다니는 동물들은 더럽고, 거미는 모두 독거미라는 태도 말이다. 그렇기에 늑대가 장난을 치고 어색한 실수를 저지르는 모습이 색다른 즐거움을 안겨준다.

《울지 않는 늑대》와 《위대한 늑대들》에는 늑대들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나온다. 먼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이 흔했을지도 모른다. 늑대와 자주 접했던 시기에는 말이다. 이렇게 과학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편견과 무지에 대한 분노도.

물론 막상 늑대와 마주치면 두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을 알 법하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식물 쪽으로도 이런 흥미진진한 책을 보고 싶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라는 말에 웬지 거부감이 생기는 사람으로서. **한**



**이 글을 쓴 이한음**은 서울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했으며, 1996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소설 부문에 당선됐다. 현재 과학 전문 번역가로 활동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과학 소설집 《신이 되고 싶은 컴퓨터》가 있고, 옮긴 책으로 《복제양 돌리》《클론 AND 클론》《일부일처제의 신화》《앞으로 50년》《핀치의 부리》《유전자들의 세기는 끝났다》《인간의 본성에 대하여》《남자》《여자, 그 내밀한 지리학》 등이 있다.

《울지 않는 늑대》 팔리 모왓 지음 | 이한중 옮김 | 돌베개 | 238쪽 | 값 9,000원  
《위대한 늑대들》 어니스트 톰슨 시튼 지음 | 이한중 옮김 | 지호 | 246쪽 | 값 9,000원